



성명서



이사장	백성기	공동대표	김태경, 주기재, 정성오, 장진영	회장	정윤하
사무총장	박원수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01 경인프라자 401호		

국가석학 정년 폐지 촉구 성명서

우리 단체는 한국인 노벨과학상이 한 명도 탄생하지 않고 있는 사회적 원인을 찾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단체입니다. 이러한 원인 중에서 석좌교수, 석학교수들의 경우 정년과 무관하게 지속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의 전당, 서울대학교에서조차 65세라는 획일적인 정년 제도로 인해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석학들이 연구를 중단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조선일보, 2025/04/03)에 따르면, 서울대학교의 뛰어난 석좌교수진 중 절반 이상이 향후 2년 내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나노 소재, 유체 역학, 북한 경제학 등 핵심 분야의 세계적 수준 연구가 단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유수의 석학들이 나이 제한 없는 타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 손실을 넘어 한국의 ‘지식 경쟁력’ 약화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노벨과학포럼은 노벨과학상 수상자들의 평균 연령이 70세 전후라는 사실과 농경사회에나 어울릴 법한 '65세 정년 퇴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심오한 지식과 경험은 나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발휘되어야 할 소중한 국가 자산입니다.

기초 과학 분야는 물론 첨단 기술 개발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인 안목과 끊임없는 연구가 필수적인 현대 사회에서 65세 정년은 오히려 학문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무분별한 정년 연장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연구 성과'입니다. 포스텍(POSTECH)과 카이스트(KAIST)와 같은 일부 선진 대학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듯이, 뛰어난 연구 실적과 학문적 기여도를 지속적으로 증명하는 학자들에 한해서는 65세 정년을 철폐하고, 이들이 가진 지혜와 역량을 국가 발전을 위해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학계, 정부,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65세 정년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학자들의 연구 역량이 나이로 인해 좌절되지 않도록 하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지식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노벨과학포럼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수 연구자들의 학문 활동이 보장되고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한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 04. 05.

(사)한국노벨과학포럼